

2010年9月14日 トロントにて

2010년 9월 14일 토론토에서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1)北米プレミア

김지운 감독「악마를 보았다」 제 35 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 (1) 북미 프리미어

<キムチ・リベンジ・スリラー> 観客の喝采を受ける

<김치·리벤지·스릴러> 관객의 갈채를 받는다



<FINECUT 提供 映画祭用パンフレット>

<FINECUT 제공 영화제용 팜플렛>

8月16日、シネマジジャーナル WEB 特別記事でキム・ジウン監督の新作を紹介した。

8월 16일, 시네마 저널 WEB 특별 기사로 김지운 감독 신작을 소개했다.

参照: [韓国封切り初日鑑賞レポート<恐ろしくも美しい映像>](#)

참조: [한국 개봉 첫날 감상 리포트<무섭고도 아름다운 영상>](#)

あれから一ヶ月後、現地時間の9月14日午後20時、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のスペシャルプレゼンテーション部門で、北米プレミアとして公式上映された。韓国では映像物等級判定により、いくつかのいきすぎた残酷シーンの削除を強いられたが、トロントではオリジナル編集バージョンを観ることができた。

1개월 후,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오후 20시, 제 35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북미 프리미어로 공식 상영되었다. 한국에서는 영상물 등급 판정에 의해, 너무 잔혹한 몇 씬은 삭제될 강요당했지만, 토론토에서는 오리지널 편집 버전을 볼 수 있었다.



美しい歴史的建造物である WINTER GARDEN THEATER で、劇場の2階の隅まで満員になった観客の大歓声に手を上げて答えながらキム・ジウン監督が登壇した。「今日これから上映されるフィルムは、韓国で削除編集をして上映されたバージョンよりも残酷なシーンが多く含まれています」と挨拶をした。「ここにいる映画祭 Co-Director の Cameron Bailey 氏が 2008 年の作品『Good Bad Weird』を<キムチ・ウェスタン>と紹介してくれましたが、『悪魔を見た』は<キムチ・リベンジ・スリラー>です。キムチのように辛くてぴりっとした感覚を味わえるはずです」と紹介して、会場を沸かせた。1ヶ月前に韓国封切り直前に味わった大変な苦勞から開放された晴れやかな表情の監督に会うことができ、私もとても嬉しかった。

아름다운 역사적 건축물인 WINTER GARDEN THEATER 로, 극장의 2 층의 구석까지 만원이 되었고, 관객들의 대환성에 손을 들어 대답하면서 김 지운 감독이 등장했다. 「오늘, 지금부터 상영되는 필름은 한국에서 삭제 편집을 해서 상영한 버전보다 잔혹한 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여기에 있는 영화제 Co-Director 인 Cameron Bailey 씨가 2008 년의 작품「Good Bad Weird」을<김치·웨스턴>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만, 「악마를 보았다」는 <김치·리벤지·스릴러>라고 해 주셨네요. 김치와 같이 매워 짜릿 한 감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회장을 흥분시켰다. 1 개월전에 한국 개봉 직전에 겪었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밝은 표정의 감독을 만날 수 있었고, 필자도 흐뭇했다..

気になるオリジナル編集バージョンは、韓国封切バージョンと並べて検証したわけではないので正確かどうか自信が無いが、監督が語ったところの「わさび」を抜かない寿司になったのを実感した。いくつかの暴力以外の場面が削られて、韓国で問題となった人体の扱いのシーンや、犯人に苦痛を与える復讐シーンがより長めに詳細に描かれていたようだ。ストーリーラインや感情の動き(ネタの味)は変わらないが、より強烈な印象が残る映像(わさび)が効いていた。

오리지날 편집 버전과 , 한국 개봉 버전을 나란히 비교해 검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 어떤지 자신이 없지만, 감독이 말한 것과 같이 「와사비」가 빠지지않은 스시인 느낌이였다. 몇개의 폭력 이외의 장면이 잘리고, 한국에서 문제가 된 인체의 취급의 씬이나, 범인에게 고통을 주는 복수 씬이 보다 길쭉하게 상세하게 그려져 있던 것 같다. 스토리 라인이나 감정의 움직임(재료의 맛)은 변하지 않지만, 보다 강렬한 인상이 남는 영상(와사비)이 효과가 있었다.

筆者は、何度目かの鑑賞なので冒頭の衝撃シーンにめげない余裕が出てきていた。ぴったりした白いシャツ姿のイ・ビョンホンが、フィアンセと通話する携帯電話を頬にはさんだまま、上着をはおる動作に見とれていたのだが、トロントの観客達はすでにここから爆笑で反応しはじめていた。その後、とうてい有り得ない残忍な方法で苦痛を与える暴力シーンと、これでもかというようなグロテスクな情景が次々と襲ってくる。そのたびに手で顔を覆う女性もいたが、多くの観客からは、そのたびにあちらこちらから「Oh～」と歓声があがり笑いと拍手が起こった。映画祭の観客はあまりに激しすぎる復讐をブラックコメディとして消化していたようだった。しかしラストシーンでは、しばらくクローズアップされたままスクリーン一杯に映し出されるイ・ビョンホンの表情に、劇場全体が静まり返った。

필 자는 작품을 몇 번 감상하였기에 충격 썬에도 굴하지 않을 여유가 생겼다.. 딱 맞는 흰 셔츠차림의 배우 이 병헌이 피안세와 통화하는 동안 휴대 전화를 얼굴에 낀채로 재킷을 걸치는 썬에 뉘을 잃고 있는동안 , 토론토의 관객들은 벌써 여기로부터 폭소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 썬과 있을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폭력 썬,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차례차례로 덮쳐 온다. 그때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성도 있었지만, 많은 관객들은 여기저기서 「Oh~」와 환성이 웃음과 박수가 일어났다. 영화제의 관객은 너무나 격렬한 복수를 블랙 코메디로서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라스트 썬에서는, 당분간 클로즈 업 된 채로 스크린 가득하게 비추어지는 배우 이 병헌의 표정에 극장 전체가 아주 조용해졌다.

エンドロールが流れはじめ、司会の「皆さん悪魔を見つけましたか？ 今回の映画祭のラインアップの中でも最も質が高く重要な作品のひとつです。」との紹介に始まり、上映後の Q&A のため監督が再び登壇した。エンドロールが 흐르기 시작하고, 사회자가 「여러분 악마를 찾아냈습니까? 이번 영화제의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질이 높고 중요한 작품의 하나입니다.」라는 소개를 시작으로 상영 후의 Q&A 을 대답하기 위해서 감독이 다시 등장 했다.



マイクの用意が足りなくて質問者も舞台上がるようになった。ある地元の男性は監督がトロントまで来てくれたことに感謝して、ジウン監督と作品の長年の大ファンであると握手を求めた。また在カナダ韓国人の若い男性は質問よりも、監督のすべての作品をどれだけ愛しているかを語り、韓国に住んでいたなら決してお会いする機会がないだろう素晴らしい監督が目の前にいることに感極まって、監督に抱擁する微笑ましい光景も見られた。前の週に訪れたベネチアには北野武監督マニアがいたが、この週のトロントではたくさんのキム・ジウン監督マニアに遭遇した。

マイクの 준비가 부족해서 질문자도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현지의 남성은 감독이 토론토까지 와 주었던 것에 감사해 했고, 김 지운 감독 작품의 열렬한 팬이라며 악수를 요구했다. 또 재캐나다인인 한국의 젊은 남성은 질문보다, 감독의 모든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를 말해, 한국에 살고 있으면 결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훌륭한 감독이 눈앞에 있는 것에 감격하고, 감독에게 포옹 하는 흐뭇한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전주에 방문한 베네치아에는 기타노 타케시 감독 매니아가 있었지만, 이번 중의 토론토 에서는 김 지운 감독 매니아가 많은 듯했다.

「もっと残酷さを強くしても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コメントに「これ以上激しいものを撮ったら訴えられるだろう」と笑いを誘った。「オールドボーイで強烈な復讐する側を演じたチェ・ミンシクをいったいどうやって反対に悲惨に復讐される側に変貌させたのか？」という質問には、「トロントの気候のせいではなく、難しい質問を受けたときに咳が出る」と咳払いをして、「チェ・ミンシク氏は復讐する役を希望していたが、『オールドボーイ』から5年が経過していて体型も変わっていらっやした(笑)。私としては、復讐者にはクールでスマートなイメージが欲しかった。結果的には、彼以上に残忍に殺人鬼を演じられる俳優は韓国にはいないという良い評判となった」そして「チェ・ミンシク氏の炎のようなカリスマのエネルギート、イ・ビョンホン氏の洗練された繊細なディテールにまでこだわる演技スタイルの好対照なコントラストがこの作品に力を与えている」と答えた。映画の中の台詞に関する細かい質問もあり観客の興味の深さも特別だった。そして「次の新しい作品を持ってまたトロントに帰って来たい」と締めくくった。

「잔혹함을 더 강하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라는 코멘트에「더 이상 격렬한 것을 찍어으면 고소당했을 겁니다.」라고 웃음을 자아냈다. 「Old Boy 에서 강렬하게 복수하는 역을 맡았던 배우 최 민식이 도대체 어떻게 반대로 비참하게 복수되는 측으로 변했는지요?」라는 질문에는 「토론토의 기후의 탓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기침이 나온다」라고 헛기침을 하고 「최 민식씨는 복수하는 역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Old Boy」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있고 체형도 변하셨습니다. (웃음), 저로서는 복수자에게는 쿨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수자 이상으로 잔인하게 살인귀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한국에는 최 민식씨뿐이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최 민식씨의 불길과 같은 카리스마 에너지와 이 병헌씨의 세련되고 섬세한 디테일까지 고수하는 연기 스타일의 콘트라스트가 이 작품을 더욱 빛나게 했다.」라고 대답했다. 영화안의 대사에 관한 세세한 질문도 있어 관객의 흥미의 깊이도 특별했다. 그리고「다른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또 토론토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매듭지었다.

近くに座っていた観客に聞いてみたが、「おもしろかった」「すばらしい」というだけでなく「美しい」という感想が何人もから聞かれた。「監督作品の中で最高!」と言った映画祭関係者もいた。会場出口で待っていたジウン監督のファンだけでなく、ちょうど同時間の上映でゲスト来場していたキアヌ・リーブスのファンからもサインを求められるなど、楽しいトロント国際映画祭の夜は更けていった。

근처에 있던 관객에게 물어 보았지만 「재미있었다」「훌륭하다」라는 표현 뿐 아니라 「아름답다」라고하는 감상도 몇 사람으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감독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말한 영화제 관계자도 있었다. 회장 출구에서는 김 지운 감독의 팬들 뿐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상영된 영화에 게스트로 입장하고 있던 키아누 리부스의 팬들로부터 싸인을 요구받는 등 즐거운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밤에는 깊어져 갔다.

キム・ジウン監督は、2008年の同映画祭でイ・ビョンホン、チョン・ウソンと一緒に参加した『GOOD BAD WEIRED』の派手なレッドカーペットと GALA 上映が記憶に新しく、過去作品とともに地元の映画ファンにも良く知られた人気監督だ。

김 지운 감독은 2008년 동영화제에서 이 병헌, 정 우성과 함께 참가한「GOOD BAD WEIRED」의 레드 카펫과 GALA 상영으로 기억되어지고 있고, 과거의 작품들과 함께 현지의 영화 팬에게도 잘 알려진 인기 감독이다.

### 『悪魔を見た』 関連別記事:

(Related Article on HomePage)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8月12日 韓国封切初日

(Aug.12, Korea Release day)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index.html>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1) 9月14日 北米プレミア

(Sep.14 North America Premier @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2/index.html>

キム・ジウン監督『悪魔を見た』 第35回トロント国際映画祭 (2) 9月14日 監督インタビュー

(Sep.14 Kim JeeWoon Interview @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ttp://www.cinemajournal.net/special/2010/akumawomita3/index.html>

(取材/文 : 祥)

本誌「シネマジャーナル」及びバックナンバーの問い合わせ: [order@cinemajournal.net](mailto:order@cinemajournal.net)

このHPIに関するご意見など: [info@cinemajournal.net](mailto:info@cinemajournal.net)

このサイトの画像・記事等の無断転載・無断使用はご遠慮下さい。

이 사이트의 화상·기사등의 무단 전재·무단 사용은 하지 말아 주세요.

掲載画像・元写真の使用を希望される場合はご連絡下さい。

계재 화상·원사진의 사용이 희망되는 경우는 연락해 주세요.